

프로야구 선수 평균연봉 1억5065만원



이대호 양의지 나성범

올해 프로야구 선수의 연봉은 평균 1억5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KBO는 18일 2019년 KBO 리그 소속선수 등록 현황 및 연봉 자료를 공개했다.

올 시즌 KBO 리그에 등록된 선수단은 1월31일 등록마감 기준으로 10개 구단의 감독 10명과 코치 248명, 선수 586명 등 총 844명이다.

코칭스태프를 포함한 구단별 선수단 규모는 한화가 98명으로 가장 많고 LG 92명, SK와 롯데 89명, KT 88명, 두산과 KIA 86명, 삼성 81명, NC 73명, 키움 67명 순이다.

◇2019년 소속선수 평균 연봉 1억5065만원, 전년 대비 0.3% 증가

신인과 외국인선수를 제외한 소속선수 501명의 평균 연봉은 1억5065만원으로 2018년 KBO 리그 최초로 1억5000만원 선을 돌파한 1억5026만원보다 0.3% 가량 소폭 증가했다. 구단별 평균 연봉은 롯데가 1억9583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NC의 평균 연봉은 지난해 1억678만원에서 2019년 1억6576만원으로 88만원이 올라 올 시즌 최고 인상액과 최고 인상률(5.2%)을 기록했다.

◇구단별 연봉 상위 27위 기준 평균 연봉 2억5142만원, 지난해보다 418만원 감소

KBO 리그 엔트리 등록 인원수 기준(신인·외국인선수 제외) 평균 연봉은 2억5142만원으로 지난해 2억5560만원에 비해 418만원이 줄었다. 구단별로는 2018년에 이어 올해도 롯데(3억4570만원)와 KIA(3억563만원)가 평균 연봉 3억원 이상을 기록했으며 2018 KBO 한국시리즈 우승팀 SK가 3억2281만원으로 3억원 구단 데일에 합류했다.

◇역대 연봉 선수 156명, 신인과 외국인선수를 제외한 501명 중 31.1%

연봉 1억원 이상을 받는 선수는 156명으로 지난해 164명에서 8명이 감소했다. 신인과 외국인선수를 제외한 501명 중 31.1%를 차지한다. 역대 연봉 선수는 리그 평균 연봉과 비슷한 수준인 1억5000만원 이상이 121명으로 24.2%였으며 구단별 연봉 상위 27위 기준 평균 연봉으로 조사된 2억5000만원 이상은 74명(14.8%)이었다.

◇롯데 이대호, 25억원으로 3년

역대 연봉 156명...이대호 25억원 최고 양의지, 6억→20억원 연봉 인상 신기록

연속 최고 연봉 선수

롯데 이대호는 연봉 25억원으로 3년 연속 개인 최고 연봉 선수 자리를 유지했으며 삼성 이승엽(2013년), LG 이병규(2015년)의 19년차 최고 연봉(8억원)을 경신했다. KIA 양현종은 23억원으로 투수부문 연봉 1위 타이틀을 지켰으며 2013년 한화 김태균이 기록한 13년차 최고 연봉(15억원)을 넘어섰다. 구단별 최고 연봉은 KIA 양현종을 비롯해 NC 양의지(20억원), SK 김광현(15억원), 키움 박병호(15억원), LG 김현수(13억원), 삼성 강민호(12억5000만원), KT 황재균(12억원), 한화 김태균(10억원), 두산 김재환(7억3000만원)이 기록했다.

◇'포수 전성시대' NC 양의지-SK 이재원, 역대 최고 연봉 인상액 1-2위 신기록

FA 계약으로 두산에서 NC로 팀을 옮긴 양의지는 연봉 20억원으로 20억원대 연봉 선수 명단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2018년 연봉 6억원에서 무려 14억원이 오르며 역대 최고 연봉 인상액 8억5000만원(2018년 롯데 손아섭)을 훌쩍 뛰어넘었다. 2019년 14억원의 연봉을 받게 된 SK 이재원은 지난해 연봉 3억5000만원에서 10억5000만원이 올라 양의지에 이어 역대 최고 연봉 인상액 2위에 올랐다. SK 김태훈은 350%의 인상률로 올 시즌 최고 연봉 인상률을 기록했으며 역대 순위로 4위에 올랐다.

◇NC 나성범-키움 이정후-KT 강백호, 연차별 연봉 경신

지난해 7년차 최고 연봉 선수였던 NC 나성범은 올 시즌 연봉 5억5000만원으로 2002년 이승엽의 8년차 최고 연봉 4억1000만원을 17년 만에 갈아치웠다. 키움 이정후 역시 지난해 2년차 최고 연봉에 이어 2019년에는 한화 류현진의 3년차 최고 연봉 1억8000만원(2008년)을 2억3000만원으로 바꿨다. 지난해 KBO 신인상을 수상한 KT 강백호는 2018년 이정후가 받은 2년차 최고 연봉(1억1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오른 1억2000만원으로 위상을 증명했다.

◇삼성 박한이 40세3일, 최고령 선수

최고령 선수가 지난해 한화 박정진에서 올해 삼성 박한이로 바뀌었다. 만 40세3일의 나이로 등극한 박한이는 2015년 진갑용(삼성) 이후 4년만에 타자로 최고령 선수 타이틀을 가져가게 됐다. 반면 최연소 선수는 만 18세8일로 등극한 KT 손동현으로 박한이와는 22년 차가 난다. 최장신 선수는 205cm의 SK 다이슨, 최단신 선수는 165cm의 KIA 김신민으로 2014년 이후 5년 만에 최단신 선수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KBO 시범경기는 3월12일에 시작되며, 3월28일 2019 신한은행 마스터즈 KBO 정규시즌 개막전이 펼쳐진다.



KIA 유망주 유승철 "목표는 70이닝"

올해 3년차... "김윤동 선배 처럼 중간 필승맨 목표"

"70이닝은 단져야죠."

KIA 타이거즈 유망주 투수 유승철(21)이 시즌의 목표를 선배 김윤동으로 잡았다. 중간필승맨으로 70이닝 이상을 던지겠다는 것이다. 김윤동이 2018시즌 던진 이닝까지도 노리고 있다. 경기수로 본다면 60경기 이상이다. 3년 차를 맞은 올해는 풀타임 주력 투수가 되겠다는 의지이다.

유승철은 작년 시즌 입단 2년 만에 데뷔를 했다. 30경기에 등판해 1승1세이브3홀드, 평균자책점 4.37를 기록했다. 47%이닝을 소화했다. 고졸 2년 차 투수의 데뷔 시즌치고는 괜찮은 성적표이다. 회전이 좋은 직구가 통했다. 장차 1군의 주전투수로 성장할수 있다는 평가와 자신감을 얻었다.

개막전 엔트리에 진입해 풀타임으로 활약했다. 그러나 동시에 속세도 안았다. 팔꿈치 통증이 찾아온 것이다. 9월 23일을 끝으로 시즌을 조금 일찍 접었다 투기 시즌이었던

2017년도 팔꿈치 통증으로 통째로 재활을 했었다. 그에겐 통증은 없애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됐다.

작년 시즌을 마치고 재활의 시간을 보냈고 오키나와 스프링캠프에서 심상함을 되찾았다. 지난 12일 주니치와의 오키나와 실전에서 마지막 투수로 나와 1이닝을 던지며 실전에 복귀했다. 성적은 2피안타(1홈런) 1실점. 직구 구속은 144km를 찍었다. 구종을 시험하며 던진 것이라 성적은 크게 개되지 않고 있다.

올해의 목표도 더욱 커졌다. 보직은 중간투수, 그 가운데 필승맨 활약을 기대받고 있다.

유승철은 "올해는 홀드 숫자가 아니라 이닝으로 목표를 세우고 싶다. 중간투수로 나선다면 70이닝 이상을 던지고 싶다. 김윤동 선배처럼 던지고 싶다"고 말했다.

김윤동은 작년 풀타임으로 82%이닝(64경기)을 던졌다. 진정한 주전투수를 향한 유승철의 눈빛이 뜨겁다.

3월 A매치, 울산 불리비아·서울 콜롬비아 확정

다시 뛰는 벤투호의 3월 A매치 스케줄이 확정됐다. 대한축구협회는 다음달 22일 오후 8시 울산문수경기장에서 불리비아, 28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콜롬비아와 친선 A매치를 펼친다고 18일 밝혔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38위인 한국의 3월 A매치 첫 상대는 60위 불리비아다. 1994년 미국 월드컵 본선과 작년 6월 오스트리아에서의 친선전에서 두 차례 맞붙어 모두 득점없이 비겼다.

콜롬비아는 FIFA랭킹 12위의 강호다. 하메스 로드리게스(바이에른 뮌헨), 라다멜 팔카오(AS 모나코) 등 화려한 선수진을 자랑한다. 최근까지 이란 대표팀을 이겼었던 카를로스 케이로스 감독을 선임해 분위기를 바꿨다. 역대 전적은 3승 2무 1패로 한국이 우세하다.

가장 최근 대결은 2017년 11월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친선 경기로 당시 손흥민(토트넘)이 멀티골을 넣어 2-1로 승리했다.

광주세계수영대회 조직위 20일 온라인 상품몰 오픈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대회 라이선스 상품의 공식 온라인 스토어가 오픈돼 기념품을 본격 판매한다고 18일 밝혔다.

주로 판매할 상품은 마스코트 인형, 배지, 열쇠고리, 텀블러, 타올, 우산 등 10여 종으로 앞으로 각종 인형과 봉제류, 생활용품류, 문구·

원구류, 잡화 등 추가상품 50여 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판매할 예정이다.

기념품을 제작한 제일F&S(주)는 광주세계수영대회 라이선스 사업권자로 평창동계올림픽에서도 후원업체로 선정돼 유니폼을 제작하는 등 국내 라이선스 상품 제작 중견업체다.

상품구매는 온라인 홈페이지로 들어가 구매하면 되고 국문서비스뿐만 아니라 영문서비스도 제공해 해외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다.

조직위는 이번 온라인 스토어 오픈을 기념해 수리&달이 마스코트 인형을 3월19일까지 20% 할인해 2만3000원인 대형 인형은 1만8400원에, 3만3000원인 대형 인형세트는 2



만6400원에, 1만원인 가방걸이 소형 인형은 8000원에 판매한다.

서은홍 기자

자연의 숨겨진 보물 창고

■ 실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년 구례군은 지리산순천, 창세마을, 회현사, 선전강, 운주루, 피아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목아재-기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